



VIDO Monthly Report *Jul.*

7월 VIDO 월간 레포트

VIDO Report는

미디어아트 트렌드와

VIDO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미디어 캔버스를 채워가는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7월의 VIDO Report 키워드 및 요약

■ Media Art Trend

-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의 앰배서더
'디지털-버추얼 아티스트 웨이드(WADE)'
- 가상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아트

■ VIDO's News

- VIDO 대전스카이로드, 7월부터 미디어아트 전시 개최

■ VIDO's Artist

- 윌슨페어즈(Wilson pairs)

Media Art Trend

Media Art Trend

7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디지털-버추얼 아티스트 웨이드(WADE),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의 앰배서더로 선정

디지털 아티스트 웨이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스니커즈 전시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의 앰배서더로 참여합니다.



출처: IPX

가상 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통해 버추얼 아티스트 혹은 캐릭터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 디지털 아티스트 웨이드도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 앰버서더로 등장합니다.

전시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푸마, 반스 등 다양한 스니커즈의 역사와 디자인을 볼 수 있고 실제 샘플 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편지, 굿즈, 기계장치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전시되어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며, 외벽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 '몽중몽'이라는 테마로 웨이드의 꿈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관을 담은 영상을 상영합니다. 또한 야외에는 웨이드를 상징하는 4m 크기의 '잠자는 웨이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전시를 열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아티스트와 버추얼 캐릭터의 영향력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와 관계를 만들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출처: IPX

*웨이드는 주류 문화와 서브 컬처를 아우르며 '다름'이 '당연함'이 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행보를 펼쳐왔습니다. IPX(구 라인프렌즈)에서 공개한 가상 아티스트로 메타버스 트렌드 속 다양하고 확장된 활동이 가능한 가상의 IP입니다.

우리집 소파에서 즐기는 오르세 미술관?

가상 현실을 활용하여 예술계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아트



사진 출처 : Apple 공식홈

지난 달, Apple은 혁신적인 공간 컴퓨터인 Apple Vision Pro를 발표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장치인 HMD(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입력 체계를 가져 이전 컴퓨터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입력 체계란, 마우스와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우리의 손짓처럼 사용자의 눈, 손, 음성을 통해 입력이 가능한 체계를 말합니다. 이렇듯 세계 최초로 완전한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공간 운영 체제**라는 게 Vision Pro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공간 운영체제의 등장은 **예술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벤트**입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예술 시장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컴퓨터 아트, 키네틱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디지털 아트들 가운데, Vision Pro처럼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예술은 관객을 능동적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작품 이해도를 높이는 장점을, 작가에게는 관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아트의 지평을 넓힐 새로운 공간 운영체제는 또 어떤 예술 작품을 선사할까요?

VIDO'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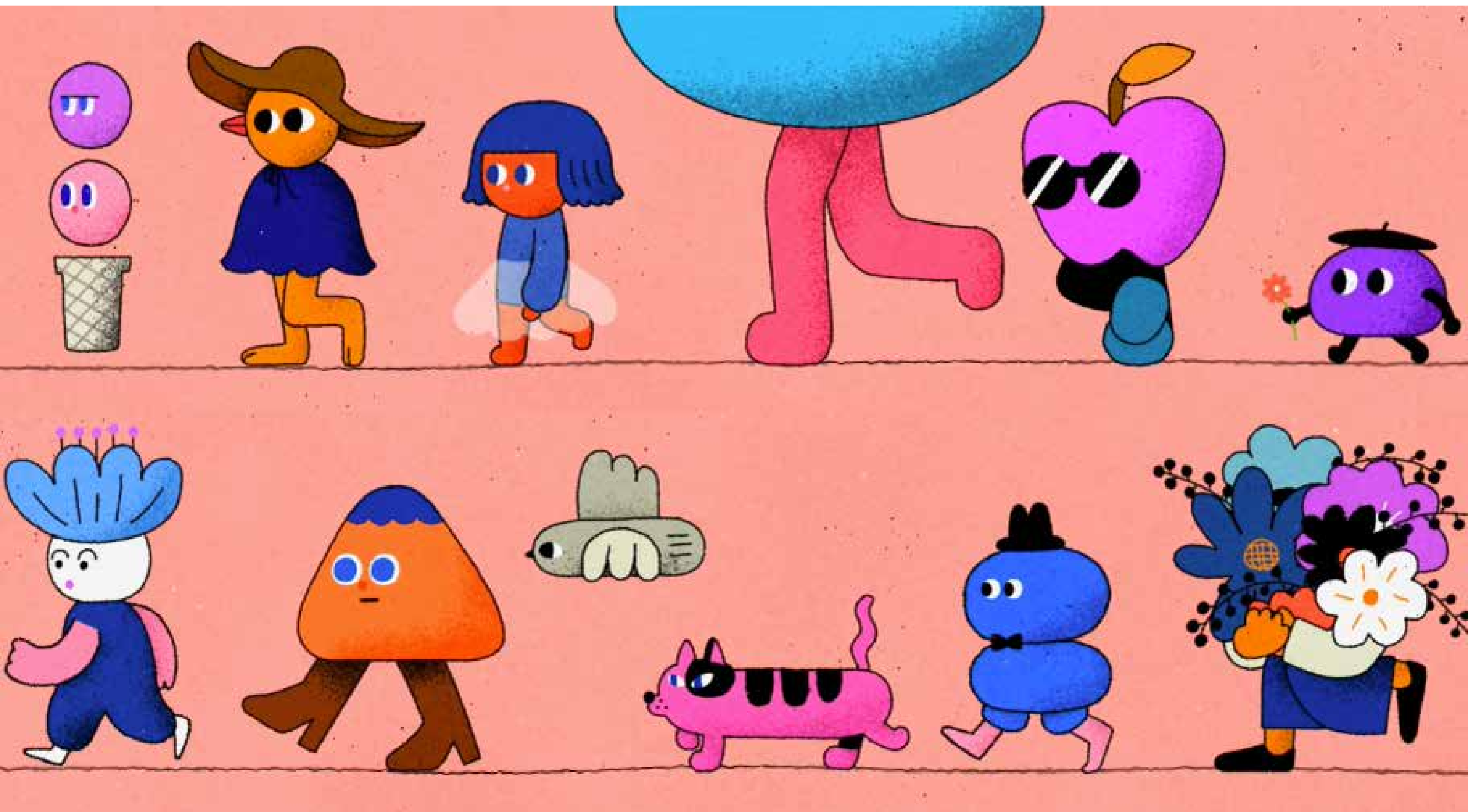
VIDO - 대전스카이로드, 7월부터 미디어아트 전시 개최해



출처 : 대전스카이로드 홈페이지

지난 7월부터 대전 스카이로드에서
VIDO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중에 10회 상영되며 대전 스카이로드는 길이 214m, 너비 13.3m, 높이 20m 규모의 초대형 LED 영상 구조물로 으능정이 거리를 밝게 빛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김메리, 김지현, 레지나킴, 임성진, 멜리그래픽, lindsayking, illustDA, kimko, XeMe_J, PH-ART'가 참여했습니다.



Indisayking, what a nice walk,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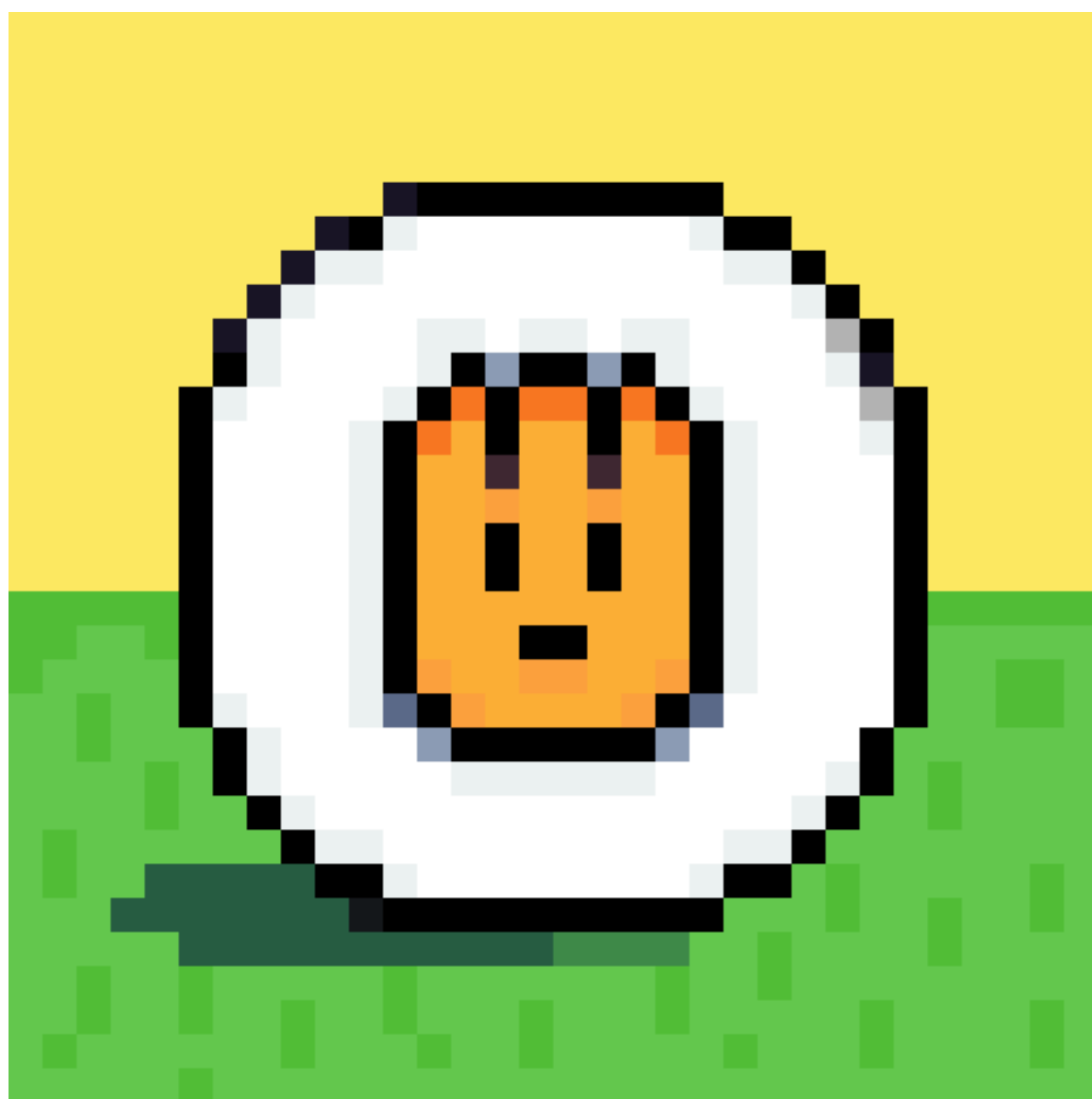
대전에서 진행한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유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서 VIDO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을 미디어 아트 통해 예술 향유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전시는 8월까지 진행됩니다.

VIDO 안의 작품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미디어 아트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영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화 된 회화와 인스톨레이션들도 업로드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vido.gallery를 방문해보세요!

Vido's Artist

이달의 작가 + 작품

'월슨페어즈(Wilson pairs)'



VIDEO에서 소개해 드릴 미디어 아티스트는
'월슨페어즈(Wilson pairs)' 입니다.

작가만의 개성 있는 캐릭터로 다양한 에피소드형 스토리를 디지털 아트에 담습니다. 월슨 캐릭터는 이야기가 담긴 섬의 넓은 세계를 보여 주며 보는 이들이 즐거움을 느끼게끔 합니다.

Q. 월슨페어즈 작가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최근에 월슨으로 NFT 작업을 하게 된 월슨페어즈라고 합니다.

Q. NFT 작업으로 디지털 아트를 시작하신 걸까요?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개인 작업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개인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도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저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했죠.

처음엔 찾는 게 어려웠어요. NFT가 아니라 처음엔 아트토이였습니다. 영상이라는 건 SNS에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보여 줬을 때 보상 같은 게 크게 돌아오거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트토이를 선택했습니다. 실물로 나와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떠올랐던 작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영상 하나를 작업해도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기에 타 분야에 도전하는 것보다 디지털 아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월슨페어즈, <Band of Maracas>, 2023, 3D 디지털아트

Q. 월슨 작품들을 보면 피리를 불다가 공기가 빠져 다시 바람을 넣는 월슨, 박스 다미의 나는 모습, 캠핑 중이거나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 월슨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보입니다. 이야기들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시는 건가요?

A. 월슨이라는 캐릭터는 혼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동물들 말고 월슨과 비슷한 친구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많은 월슨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월슨도 손바닥으로 찍혀 탄생한 거잖아요. 다른 물건도 월슨의 얼굴이 찍히면 살아나는 거죠.

말씀하신 박스 다미의 경우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박스가 섬에 도달하기 전의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박스인 다미는 고양이가 살던 곳이자, 고양이와 함께 사는 아이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고양이가 천국으로 가는데 다미는 월슨이 되어서 그 고양이를 찾기 위해 날고 있어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닿을 수 있게 높게 나는 연습을요. 또 다미는 심부름 가는 걸 좋아해요. 계속 연습할 수 있거든요.



원서, <Can't see>, 2023, 3D 디지털 아트

**Q.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아기자기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잡으시나요?
혹은 신경 쓰시며 작업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아직은 명확히 어떤 걸 작업 중 집중하여 제작한다랄 게 없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져오려고 해요. 작품을 쓱 봤을 때 '어, 이거 되게 좋다', '재미있다' 이런 감상을 받게 노력해요. 이번 VIDO에 춤추는 월슨 영상을 올렸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좋아요 수가 아닌 사람들의 감상이에요.

최근 DEEP 작가들과 COEX, 'Blossom The Hope' 전시를 해서 현장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부모님과 아기가 제 작품을 보면서 춤을 따라 추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다같이 자리에 서서 월슨의 춤을 추시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더 제 작업을 보고 잠깐이라도 웃음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일단 주변을 귀찮게 물어봐요. 아직 완성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보여 주고 피드백을 얻은 뒤에 '이건 해 봐야겠다.',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하곤 해요.



월슨페어즈, <SPRING TIME>, 2023, 3D 디지털아트



월슨페어즈, <Bunker Ball>, 2023, 3D 디지털아트

Q. 마지막으로 VIDO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서 남기시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영상이라는 건 수익화 원하면 외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개인 작업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비메오, 비헨스에 올렸을 때 큰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힘이 빠지게 돼요. 하지만 VIDO 플랫폼으로 작가들에게 미디어 캔버스에서 전시할 수 있다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연결점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작가들의 개성 담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슨페어즈의 작품을 vido.gallery에서 만나보세요.

VIDO 월간 레포트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

상단의 링크에 접속하여 VIDO 월간 레포트에 유익한 부분, 아쉬운 부분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남겨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니즈를 통해 더 전문적이고 성장하는 VIDO 월간 레포트를 만들겠습니다.

Follow us

매달 미디어아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